

2024년 상주교예식서



천주교미션교구옥포성당

I . 주님 수난 성지 주일

【 준비 사항 】

구 분	담당자	내 용	비 고
제 의 실	수녀님	빨간색 제의, 향로 set, 예식서(프린트), 성수 set	
제 대	수녀님	주일미사와 동일(성주간 예식서: 수난 복음 부분)	
성 모 동 굴	수녀님	축복할 가지(사제용 2개 준비), 마이크, 독서대, 해설대, 독서집(보좌 사제가 들고 입당)	
미 사	전례분과	복사 5명(향 복사 2, 초복사 2, 십자가 복사), 독서자 2명, 수난 복음 1명(제1독서자) 수난 복음 교우들 응답 부분 연습 공지	미리 공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념

제1양식: 행렬

1. 적당한 시간에 신자들은 축복할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입당할 성당 밖의 작은 경당이나 다른 적합한 장소, 곧 성모 동굴 앞에 모인다. 사제는 미사 때처럼 빨간색 제의를 입고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교우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간다. 이때는 향을 넣지 않는다.

행렬 전 해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주님 수난 성지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전례에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며 주님을 우리의 임금님으로 모시게 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수난의 신비를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겪는 삶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합시다.

2. 그동안 따름 노래 “호산나 나뭇의 자손”(마태 21,9 참조)을 노래한다.

3. 사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말하며, 신자들과 함께 십자 성호를 긋는다. 사제는 보통 때와 같이 교우들에게 인사한다. 이어서 신자들에게 능동적이고 의식적으로 예식에 적극 참여하라고 아래의 말이나 비슷한 말로 간단히 권고한다.

✚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사순 시기 처음부터

참회와 사랑의 실천으로 마음을 준비하였고

오늘 교회와 함께

주님의 파스카 신비의 시작을 알리고자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수난과 부활의 이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다하고 열성을 다하여

주님의 입성을 기념하고

은총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며

주님의 부활과 그 생명에 동참하도록 합시다.

4. 권고가 끝난 다음 사제는 팔을 벌리고 아래의 기도를 바친다.

✚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이 나뭇가지에 ✚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받들어 모시고 환호하는 저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 아멘.

성지 축복 전 해설

예수님의 제자들과 히브리인들은 손에 종려와 올리브 가지를 들고 입성
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였습니다. 사제가 축복하는 이 나뭇가지
는 생명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모두 나뭇가지를 높이 들어주십시오.

5. 사제는 말없이 나뭇가지에 성수를 뿌린다. 그다음에 사제가 보통 때와 같이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복음을 읽는다. 이때 복사들은 향을 준비한다.

복음(마르 11,1-10)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곧 올리브 산 근처 벳파게와 베타니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러는 거요?’ 하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러는데
곧 이리로 돌려보내신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과연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바깥 길 쪽으로 난 문 곁에
매여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푸는데,
거기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몇 사람이,
“왜 그 어린 나귀를 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일러 주신 대로 말하였더니
그들이 막지 않았다.
제자들은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겹옷을 얹어 놓았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올라앉으시자,
많은 이가 자기들의 겹옷을 길에 깔았다.
또 어떤 이들은 들에서 앞이 많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깔았다.
그리고 앞서가는 이들과 뒤따라가는 이들이 외쳤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6. 복음 봉독 후에 강론을 짧게 할 수 있다. 이어서 행렬을 시작하도록 사제는 아래의 말로 권고한다.

행렬 시작 권고

✚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환영하던 군중을 본받아
평화의 행렬을 합시다.

7. 이후 복사는 향을 준비한다.

행렬 전 해설

이제 사제는 제단으로 행렬하여 올라갑니다. 굳은 믿음과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에 참여하는 자세로 행렬에 동참합니다.

8. 이어서 관례에 따라 미사를 거행할 성당으로 행렬을 시작한다.

행렬 순서는 향로와 향합 봉사자, 십자가, 초복사, 공동집전 사제, 주례 사제 순이다.

그리고 이어서 성가대, 교우 순으로 미사를 거행할 성당으로 행렬을 시작한다.

행렬하면서 성가대와 교우들은 아래의 노래나 그리스도 임금님께 영예를 드리는 다른 알맞은 노래를 부른다.

따름 노래 1

◎ 히브리 아이들이 올리브 가지 손에 들고 주님을 맞으러 나가
외치는 환호 소리 “높은 데서 호산나!”

9. 행렬이 성당 안으로 들어갈 때에 아래의 노래를 부른다.

◎ 주님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10. 사제가 제대 앞에 이르면 경의를 표시하고, 분향한다.

제대 절 순서는 먼저 들어오는 향로, 향합 봉사자, 공동집전 사제와 주례 사제 순이다.
 십자가와 초복사는 따로 절하지 않고 제단으로 바로 올라간다.
 미사 시작 예식과 경우에 따라 자비송도 생략하고 미사의 본기를 바친 다음 보통 때와
 같이 미사를 계속한다.

미사

11. 행렬이나 성대한 입당이 끝나면 사제는 본기도로 미사를 시작한다.
12. 주님의 수난기는 촛불, 분향, 인사 없이 또 책에 십자 표시를 하지 않고 읽는다.

복사 유의 사항

1. 행렬이 시작되기 전 향을 넣을 준비를 하여 향을 넣고 행렬을 한다.
2. 예물봉헌 후 향복사는 제대 분향을 준비한다. 주례 사제의 제대 분향 후 향로담당은 사제분향, 신자분향을 차례대로 한다.
3. 거양성체 때 향로담당 복사와 초복사는 제대 앞에서 꿇어 분향하고, 향합 담당은 종을 친다.
4. 복사들은 파견할 때 미리 내려가서 제대를 보고 선다. 사제가 내려오면 절하고 제의실로 향한다,
5. 퇴장 시 위치
 : 초복사 - 향합 - 사제 - 주례 사제 - 향로 - 십자가 - 초복사
6. 퇴장 시 행렬순서
 : 초복사 ⇐ 향로 ⇐ 향합 ⇐ 십자가 ⇐ 사제 ⇐ 주례 사제

성가대 유의 사항

1. 모든 미사곡과 성가를 생략하지 않고 부른다.

II. 주님 민천 성목요일

【 준비 사항 】

구 분	담당자	내 용	비 고
제의실	수녀님	흰색 제의, 향로 및 향합, 사제용 비누·수건 2장.	
제 대	수녀님	종, 백색 제대초 6자루, 미사 통상문, 예식서	
제 단	수녀님	대야·물 주전자 2개씩, 수건 12개, 수건용 쟁반 2개, 의자 12개(제단 아래) 주수병, 성합 2개(특대제병 1, 대제병 1), 대량의 소제병. 딱딱이, 어깨보(흰색)	
수 난 감 실	제대회 수녀님	감실 열쇠, 사제방석, 성체조배 책자(매일 미사 10권), 초 4자루.	
성 체 조 배	전례분과	성체조배 시간대별 팀 미리 공지.	
복사단		복사 5명(향복사 2명, 시종 복사 2명, 십자가 복사 1명)	

※ 발 씻김 예식은 보좌와 주임 사제 모두 함께.

저녁 미사

입당 전 해설

(미사 전에 ‘가난한 이들을 위한 헌금’에 대해 안내한다.)

오늘은 ‘주님 만찬 성목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수난 하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어 주시며 제자들에게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빵을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우리도 서로 발을 씻어 줄 것을 다짐하며 미사를 봉헌합시다.

1. 성가대가 입당성가를 시작하면, 복사와 사제들은 행렬한다. 행렬순서는, 앞에서부터 ‘향로-향합, 십자가, 시종 복사(초복사), 공동집전 사제, 주례 사제’ 순이다.
주례 사제는 제대에 분향한다. 분향이 이루어지는 동안 성가를 계속 노래한다.
2. 대영광송을 노래한다. 대영광송을 노래하는 동안 종을 친다. 이 노래가 끝나면 파스카 성야에 대영광송을 노래하기 전까지 종을 치지 않는다.
3. 복음 선포 전에 분향을 준비한다.
4. 복음 선포 후에 사제는 강론을 한다. 강론에서 이 미사로 기념하는 중요한 신비들, 곧 성찬례와 사제직의 제정, 형제 사랑에 관한 주님의 계명을 풀이한다.
5. 강론이 끝난 다음에, 발 씻김 예식을 거행한다.

발 씻김 예식

6. 주례 사제가 제의를 벗고 발 씻김 예식을 준비하는 동안, 아래의 해설을 한다. 해설하는 동안, 봉사자들은 신자석을 향해 의자를 준비하고, 자리가 준비되는 대로 미리 선 발된 대상자들은 자리에 앉는다. 그 후, 주례 사제 혹은 사제들은 대상자들의 발을 씻는다.

발 씻김 예식 전 해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발 씻김 예식을 거행해왔습니다. 이제 사제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을 본받아 교우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예식의 의미를 깨닫고 이웃사랑을 실천해야겠습니다.

8. 신경 없음

7. 발 씻김 예식이 거행되는 동안 향로 복사는 주전자를 들고, 향합 복사는 세숫대야를 담당하며, 초복사는 수건을 담당한다. 성가대는 준비된 따름 노래를 노래한다. 발 씻김 예식이 끝나면 사제는 손을 씻고 땀는다. 제의를 다시 입고 자리로 돌아온다. 이어서 보편 지향 기도를 이끈다.

보편 지향 기도

✚ 형제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어
사랑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램을 아뢰시다.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만찬 미사에서 성체성사와 성품성사 제정을 되새기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교회가 사랑과 봉사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소서.

2.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통치자이신 주님, 공직자들에게 성령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깊이 생각하고, 사회적 우애와 공동선 실현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게 하소서.

3. 굶주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며 굶주리는 이들을 굶어살피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누구나 인간다운 품위를 지킬 수 있게 하소서.

4.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사순 시기를 충실히 살아온 본당 사도직 단체들에 강복하시어, 언제 어디서나 말과 행동으로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 지극히 선하신 주님,

이 만찬 미사에서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드리는
주님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성찬 전례

9. 신자들은 성찬 전례를 시작할 때에 빵과 포도주와 함께 가난한 이들을 위한 예물을 바치는 행렬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참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 계시네'를 노래한다.

10. 성찬 감사송 1 〈그리스도의 제사와 성사〉

11. 감사 기도 제1양식(로마 전문)을 바칠 때에는 고유 성인 기도와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와 고유 성찬 제정문을 아래와 같이 특별한 양식으로 바친다.

12. 사제는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주례 사제

+ 인자하신 아버지,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청하오니

사제는 손을 모으고 기도하며, 빵과 성작 위에 십자 표시를 한 번 한다.

이 거룩하고 흠 없는 예물을 받으시고 ✠ 강복하소서.

사제는 팔을 벌리고 계속한다.

먼저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위하여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들과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보편 신앙을 오롯이 받드는
모든 이를 돌보시어
세상 어디서나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일치하게 하시며
지켜 주시고 다스리소서.

13. 산 이를 기억한다.

첫째 사제

+ 주님, 주님의 종 아무와 아무를(혹은 종들을) 생각하소서.

14. 사제는 손을 모으고 지향에 따라 잠깐 속으로 기도한다.

15. 그다음에 팔을 벌리고 계속한다.

아울러, 주님께서 여기 모인 모든 이의 믿음과 정성을 아시오니
이들도 굽어보소서.

저희는 이들을 위하여 찬미의 제사를 바치나이다.

이들도 자신과 일가친척과 친지들이
안전하게 구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
영원하시며 살아 계신 참하느님께
이 찬미의 제사를 바치나이다.

16. 성인들을 기억하며

둘째 사제

✚ 저희는 온 교회와 일치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몸과 피를 내어 주신
이 거룩한 날을 특별히 기념하나이다.
우리 주 천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며
영광스러운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를 비롯하여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사도들과 순교자들
베드로와 바오로, 안드레아와
(야고보, 요한과 토마스, 야고보와 필립보
바르톨로메오와 마태오, 시몬과 타대오
리노와 클레토, 클레멘스와 식스토
고르넬리오와 치프리아노, 라우렌시오와 크리스고노
요한과 바오로, 고스마와 다미아노)
그 밖의 모든 성인을 생각하며 공경하오니

그들의 공로와 기도를 보시어
 모든 일에서 저희를 도우시고 보호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17. 사제는 팔을 벌리고 계속한다.

주례 사제

+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몸과 피를 제자들에게 내어 주시며
 거룩한 성사로 거행하게 하신 이날에
 저희 봉사자들과 온 가족이 바치는 이 예물을
 기꺼이 받아들이소서.
 저희를 한평생 평화롭게 하시며
 영원한 벌을 면하고
 뽕힌 이들의 무리에 들게 하소서.

사제는 손을 모은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18. 사제는 두 손을 예물 위에 펴 얹고 기도한다.

(모든 사제)

+ 주 하느님,
 이 예물을 너그러이 받아들이고 강복하시어
 참되고 완전하며 합당한 제물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사제는 손을 모은다.

19. 아래의 기도문에서 주님의 말씀은 마디마다 또렷하게 받음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저희와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하여 수난 전날
바로 오늘 저녁에

사제는 제대 위에서 빵을 조금 들어 올리고 계속한다.

거룩하신 손에 빵을 드시고

사제는 위를 본다.

하늘을 우리러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쫓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사제는 허리를 조금 굽힌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
내 몸이다.**

사제는 축성된 빵을 받들어 교우들에게 보이고 성반에 내려놓은 다음, 깊은 절을 한다.

20. 이어서 계속한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사제는 제대 위에서 성작을 조금 들어 올리고 계속한다.

거룩하신 손에 이 귀중한 잔을 드시고

다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사제는 허리를 조금 굽힌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사제는 성작을 받들어 교우들에게 보이고 성체포 위에 내려놓은 다음, 깊은 절을 한다.

21. 이어서 말한다.

+ 신앙의 신비여!

교우들은 뒤따라 환호한다.

◎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22. 사제는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 주님, 저희 봉사자들과 주님의 거룩한 백성은
성자 우리 주 그리스도의 복된 수난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과 영광스러운 승천을 기념하나이다.
저희는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 가운데서
이 깨끗한 제물, 거룩한 제물, 흠 없는 제물**

영원한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존엄한 대전에 봉헌하나이다.

이 제물을 인자로이 굽어보시고
일찍이 주님의 의로운 종 아벨의 제물과
저희 조상 아브라함의 제사와
대사제 멜키체덱이 바친
거룩하고 흠 없는 제물을 받아 주셨듯이 이를 받아들이소서.

23. 사제는 허리를 굽히고 손을 모아 계속한다.

전능하신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거룩한 천사의 손으로
이 제물이 존엄한 천상 제단에 오르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제단에서
성자의 거룩한 몸과 피를 받아 모실 때마다

사제는 몸을 바로 하고 십자 성호를 그으면서 말한다.

하늘의 온갖 은총과 복을 가득히 내려 주소서.

사제는 손을 모은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4. 죽은 이를 기억한다.

셋째 사제

사제는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 ✦ 주님, 신앙의 표를 지니고 저희보다 먼저 평안히 잠든
주님의 종 아무와 아무를(혹은 종들을) 생각하소서.

사제는 손을 모으고 지향에 따라, 죽은 이를 위하여 잠깐 속으로 기도한다.

그다음에 팔을 벌리고 계속한다.

주님, 간구하오니
그들과 그리스도 안에 쉬는 모든 이를
행복과 광명과 평화의 나라로 인도하소서.

사제는 손을 모은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5. 사제는 오른손으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한다.

넷째 사제

✦ 주님의 끝없는 자비를 바라는 주님의 종인 저희 죄인들도

사제는 팔을 벌리고 계속한다.

거룩한 사도들과 순교자들
요한과 스테파노, 마티아와 바르나바
(이나시오와 알렉산데르, 마르첼리노와 베드로
펠리치타와 페르페투아, 아가타와 루치아
아네스와 체칠리아, 아나스타시아와)
그 밖의 모든 성인과 더불어 살게 하시며
저희의 공과 덕이 부족하오니 용서를 베푸시어
그들 무리에 들게 하소서.

26. 사제는 손을 모으고 계속한다.

주례 사제

✦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온갖 좋은 것을 창조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생명을 주고 강복하시어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나이다.

27. 사제는 성반과 성작을 받들어 올리고 계속한다.

(모든 사제)

✚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교우들은 환호한다.

◎ 아멘.

그다음에 영성체 예식이 이어진다.

28. 영성체가 끝나면 다음 날을 위하여, 남은 성체는 성합에 담아 제대 위에 모셔 둔다. 사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영성체 후 기도를 바친다.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를 옮겨 모심

29. 영성체 후 기도를 바치고 나서 사제는 향로에 향을 넣고 축복한 다음 무릎을 꿇고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께 세 번 분향한다. 그다음에 흰색 어깨보를 두르고 일어나서 성합을 들고 어깨보 끝으로 감싸 덮는다.

행렬 전 해설

최후의 만찬이 끝난 직후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함께 겔세마니 동산에 가시어 번민 중에 기도하신 후 제자들의 배반, 체포, 모욕, 매 맞음, 사형선고, 십자가의 고통 등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마침내 돌아가십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겪으신 이러한 수난의 여정에 참여하는 뜻으로 수난 감실로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를 옮겨 모시고 밤을 새워가며 성체조배를 합니다. 우리는 “한 시간만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 하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고통을 당하시는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우리 자신과 세상의 죄를 뉘우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사랑의 대화를 주님과 함께 나눕시다.

30.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를 모셔 가는 행렬을 시작한다. 촛불과 향을 앞세우고 성당 가운데를 지나, 성당의 다른 곳이나 다른 경당에 알맞게 장식하여 특별히 마련한 성체 보관 장소(수난 감실)로 간다. 십자가를 든 평신도 봉사자가 앞장서고 십자가 양옆에 촛불을 켜 둔 봉사자들이 선다. 그 뒤에 촛불을 켜 둔 다른 봉사자들이 뒤따른다. 이어서 향로 봉사자가 향을 피운 향로를 들고 간다. 그 뒤에 사제는 성체를 모시고 간다. 행렬하는 중간에 향로 봉사자는 세 차례 분향하는데, 제대 앞에서, 성전 입구에서, 다른 알맞은 장소(1층 사무실 앞)에서 분향한다. 그동안 찬미가 입을 열어 찬양하세(마지막 두 절을 남겨 두고)나 다른 성체 노래를 부른다.

31. 행렬이 성체 보관 장소(수난 감실)에 이르면 사제는, 감실 안에 성합을 모셔 놓는다. 감실 문은 열어 둔다. 그다음에 향로에 향을 넣고 무릎을 꿇고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께 분향한다. 그동안 지존하신 성체 앞에나 다른 성체 노래를 부른다. 그다음에 사제는 성체를 모셔 둔 감실 문을 닫는다.

32. 침묵 가운데 잠깐 성체께 조배하고 나서 사제는 봉사자들과 함께 깊은 절을 한 다음 제의실로 돌아간다.

33. 사제와 봉사자들은 성전에 들어와 제대를 벗기고 십자가를 가린다.

해설

이제 사제는 제단에 올라와 제대보를 벗깁니다. 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대보가 벗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수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유의 사항

1. 퇴장은 초복사, 향복사, 사제 순으로 한다.
2.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를 수난 감실로 옮기는 행렬을 하기 전에, 담당 수녀님이 미리 수난 감실로 가서 촛불을 켜두고 감실문을 열어둔다.
3. 발 씻김 예식 대상자는 사전에 정해 둔다.

III. 주님 수난 상금요일

【 준비 사항 】

구 분	담당자	내 용	비 고
제의실	수녀님	빨간색 제의	
제 대		마이크, 성주간 예식서	
제 단		(제대 앞) 십자가 안치대 (주수상) 성체포, 성작수건, 성합 2개, 제대포, 물, 딱딱이, 십자가 경배용 방석 4개(복사용 포함)	
기 타		(유아실 앞) 경배용 십자가, 초·촛대 2개 (수난 감실) 초·촛대 2개, 어깨보	
독서대 해설대	수녀님 전례분과	독서자용 매일 미사 성주간 예식서 2부, 무선마이크 2대	
전례봉사	전례분과	해설자 1명, 독서자 2명 - 제1독서자가 수난 복음의 '다른 한 사람' 및 '다른 몇몇 사 람' 부분 담당	
복사단		시종 및 초복사 2명	

※ 해설자는 수난 복음 중 '다른 몇몇 사람'과 '군중' 부분에 신자들도 함께할 것을 안내하고 가능하면 연습하도록 이끈다.

1. 제대는 십자가도 촛대도 제대포도 없이 완전히 벗겨 둔다. 이날은 행렬용 십자가와 향을 사용하지 않는다.

주님 수난 예식

입당 전 해설

오늘은 ‘주님 수난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께서 죄인들 손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어린양이 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님께서 겪으신 고통에 함께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고통에 함께하는 길은 우리가 지은 죄를 뉘우치며 아파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수난과 회생을 기억하며 주님 수난 예식을 시작합니다.

2. 사제는 미사 때처럼 빨간색 제의를 입고, 아무 말 없이 제대로 나아간다. 봉사자들은 촛대 없이 나아간다. 제대 앞에 이르러 경의를 표시하고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리거나, 경우에 따라서 무릎을 꿇고, 침묵 가운데 잠깐 기도한다. 다른 이들은 모두 무릎을 꿇는다.

3. 그다음에 사제는 봉사자들과 함께 주례석으로 간다. 거기서 교우들을 바라보고 서서 팔을 벌리고 아래의 기도를 바친다. **이끄는 말 기도합니다.는 생략한다.**

기도

+ 주님

성자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어 파스카 신비를 마련하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종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 아멘.

제1부 말씀 전례

4. 모두 앉는다. 제1독서로 이사야서(52,13-53,12)를 봉독하고 화답송을 한다.
5. 이어서 제2독서로 히브리서(4,14-16:5,7-9)를 봉독하고 복음 환호송을 한다.
6. 그다음에 요한이 전한 주님의 수난기(18,1-19,42)를 성지 주일과 같은 방법으로 봉독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

○ 해설자 + 예수님 ● 다른 한 사람 ■ 다른 몇몇 사람 ◎ 군중

○ 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입니다.

그때에 1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함께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2 예수님께서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3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4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물으셨다.

+ “누구를 찾느냐?”

5 ○ 그들이 대답하였다.

■ “나자렛 사람 예수요.”

○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셨다.

+ “나다.”

○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6 예수님께서서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7 예수님께서서 다시 물으셨다.

+ “누구를 찾느냐?”

○ 그들이 대답하였다.

■ “나자렛 사람 예수요.”

8 ○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9 ○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 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 다. 10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 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11 그러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12 ○ 군대와 그 대장과 유다인들의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13 먼저 한나스에게 데려갔다. 한나스는 그해의 대사제 카야 파의 장인이었다. 14 카야파는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 다고 유다인들에게 충고한 자다. 15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 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저택 안뜰에 들어갔다. 16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 는데, 대사제와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17 그때에 그 문지기 하녀가 물었 다.

●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 “나는 아니오.”

18 ○ 날이 추워 종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 놓고 서서 불을 쪼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쪼었다. 19 대사제는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20 예수님께서 그 에게 대답하셨다.

+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21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22 ○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성전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며 말하였다.

● “대사제께 그따위로 대답하느냐?”

23 ○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 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24 ○ 한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카야파 대사제에게 보냈다.

25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쪼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오?”

○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 “나는 아니오.”

26 ○ 대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라 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

●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27 ○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닭이 울었다. 28 사람들이 예수님을 카야파의 저택에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이 더러워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29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물었다.

●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오?”

30 ○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 “저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오.”

31 ○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소.”

32 ○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33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물었다.

●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이오?”

34 ○ 예수님께서 되물으셨다.

+ “그것은 네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 준 것이냐?”

○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35 ● “나야 유대인이 아니잖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요.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36 ○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다.

+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37 ○ 빌라도가 물었다.

●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오?”

○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다.

+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38 ○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 “진리가 무엇이오?”

○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

39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내가 파스카 축제 때에

죄수 하나를 풀어 주는 관습이 있소.

내가 유대인들의 임금을 풀어 주기를 원하오?”

40 ○ 그러자 유대인들이 다시 외쳤다.

◎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빠를 풀어 주시오.”

○ 바라빠는 강도였다. 19,1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 2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서, 3 그분께 다가가 이렇게 말하며 그분의 뺨을 쳐 댔다.

■ “유대인들의 임금님, 만세!”

4 ○ 빌라도가 다시 나와 말하였다.

● “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라는 것이오.”

5 ○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 “자, 이 사람이오.”

6 ○ 그때에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외쳤다.

■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 빌라도가 말하였다.

● “여러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하겠소.”

7 ○ 그러자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소. 이 율법에 따르면 그자는 죽어 마땅하오.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였기 때문이오.”

8 ○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9 그리하여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물었다.

● “당신은 어디서 왔소?”

○ 예수님께서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10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오? 나는 당신을 풀어 줄 권한도 있
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11 ○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 “네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12 ○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 줄 방도를 찾았다. 그러나 유
대인들은 외쳤다.

◎ “그 사람을 풀어 주면 총독께서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오.

누구든지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
오.”

13 ○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리토스트
로토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로토스는 히브

리 말로 가빠타라고 한다. 14 그날은 파스카 축제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열두 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하였다.

●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यो.”

15 ○ 그러자 유대인들이 외쳤다.

◎ “없애 버리시오. 없애 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오?”

○ 수석 사제들이 대답하였다.

■ “우리 임금은 황제뿐ियो.”

16 ○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17 예수님께서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18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19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20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 21 그래서 유대인들의 수석 사제들이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 “‘유대인들의 임금’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대인들의 임금이다.’ 하고 저자가 말하였다고 쓰시오.”

22 ○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 “내가 한번 찢으면 그만ियो.”

23 ○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24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25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

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26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27 ○ 이어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28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 “목마르다.”

29 ○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30 예수님께서서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 “다 이루어졌다.”

○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무릎을 꿇고 잠깐 묵상한다.〉

31 ○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32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33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34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35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36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37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찢은 이를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38 그 뒤에 아리마

태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39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백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40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다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료와 함께 아마포로 감쌌다. 41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42 그날은 유다인들의 준비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7. 주님의 수난기를 봉독한 다음에 사제는 짧은 강론을 한다. 강론 끝에 사제는 신자들에게 잠깐 기도하자고 권고할 수 있다.

보편 지향 기도

8. 보편 지향 기도로 말씀 전례를 마친다. 제2독서자가 독서대에 서서 기도 지향을 알린다. 그다음에 모두 잠깐 침묵하며 기도하고, 이어서 사제는 주례석이나 경우에 따라 제대에 서서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그동안 신자들은 무릎을 꿇거나 서 있을 수 있다.

I. 교회를 위한 기도

○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주 하느님께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에 평화와 일치를 주시고 길이 보존하시어, 우리가 평온하게 살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도록 기도합시다.

(침묵 기도)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니, 자비로이 구원하신 저희를 지켜주시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끝까지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II. 교황을 위한 기도

○ 우리 주 하느님께서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를 친히 목자로 뽑으셨으니, 그를 건강하게 지켜주시어,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에 봉사하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기도합시다.

(침묵 기도)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온 세상을 하느님의 뜻대로 세우셨으니 저희 기도를 자비로이 들어주시어, 하느님께서 뽑으신 교황을 인자로이 보호하시고, 그리스도의 백성을 몸소 다스리시며, 교황의 인도로 믿음의 공로를 쌓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III. 모든 성직자와 신자를 위한 기도

○ (우리 주교들과) 모든 주교, 사제, 부제 그리고 모든 신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침묵 기도)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을 통하여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켜주시어, 저희가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IV. 예비 신자들을 위한 기도

○ 우리 주 하느님께서 자비로이 예비 신자들의 귀를 열어 주시고, 마음을 움직이시어, 예비 신자들이 세례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도록 기도합니다.

(침묵 기도)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끊임없이 새로운 자녀들로 교회를 풍요롭게 하시니, 예비 신자들에게 믿음과 지식을 더해 주시어 세례의 샘에서 새로 나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V.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

○ 우리 주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를 진리에 따라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인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침묵 기도)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흩어진 이들을 모으시고 모인 이들을 지켜 주시니 성자의 양 떼를 굽어보시어 하나의 세례로 거룩하게 하신 모든 형제가 온전한 신앙으로 일치하고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VI.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

○ 우리 주 하느님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들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계약을 충실히 지키도록 기도합니다.

(침묵 기도)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구세주를 약속하셨으니, 교회의 기도를 인자로이 들으시어 하느님께서 처음에 뽑으신 백성이 풍성한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VII.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기도

○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이 성령의 빛을 받아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침묵 기도)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이 양심대로 살아가며 진리를 찾아 얻게 하시고 저희는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아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밝히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VIII.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기도

○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이 양심대로 바르게 살아 하느님을 찾아 모시도록 기도합시다.

(침묵 기도)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찾고 만나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하셨으니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자들의 착한 행실을 거울삼아 하느님 홀로 참된 하느님이시며 인류의 아버지이심을 기꺼이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IX.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

○ 우리 주 하느님께서 위정자들의 마음을 비추시어 주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이의 참된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헌신하도록 기도합시다.

(침묵 기도)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모든 사람의 권리와 염원이 하느님 손에 달렸으니 저희를 위하여 봉사하는 위정자들의 마음을 이끄시어 세상의 평화와 민족의 번영과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 끊임없이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X.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기도

○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무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아픔과 굶주림을 없애시며 갇히고 묶인 이를 풀어 주시고 떠도는 나그네를 보살피 주시며 죽어 가는 이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침묵 기도)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슬퍼하는 이에게 위로를 주시고 고생하는 이에게 용기를 주시니 온갖 곤경 속에서 부르짖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고통받는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운 도우심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2부 십자가 경배

해설

지금부터 수난 예식의 중심 부분인 십자가의 경배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를 엄숙히 맞이하며 그리스도께 나아가 직접 경배하면서 십자가의 원인이 된 우리 잘못에 대한 용서를 청하고 사랑과 감사를 표시합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어 생명까지 바치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깊은 절을 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감사드리며 사랑을 고백합니다. 모두 뒤로 돌아서서 십자가를 향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십자가를 보여 주는 예식

둘째 양식

9. 사제는 봉사자들과 함께 성당 문으로 간다. 거기서 가리지 않은(혹은 가려진) 십자가를 받아 들고, 촛불을 켜 든 봉사자들과 함께 성당 가운데를 지나 제단으로 행렬하여 나아가며, 성당 문간과 중앙과 제단 앞에서 십자가를 높이 들고 보라, 십자 나무를 노래한다. 모든 이든 모두 와서 경배하세.로 화답한다. 위에서 하는 것처럼 노래가 끝날 때마다 모두 무릎을 꿇고 잠깐 침묵 가운데 경배하거나, 깊은 절을 한다.

(사 제)
1. 십자가 머리 부분을 벗겨 높이 쳐 들고



보라 십자 나무여 기세 상구 원이

(신자)



달렸네 모두와서 경배하세

거룩한 십자가 경배

10. 그다음에 촛불을 켜 든 두 봉사자와 함께 사제는 제단 앞이나 다른 알맞은 곳에 십자가를 가져가서 거기에 두거나 봉사자들에게 붙잡게 한다. 십자가 오른쪽과 왼쪽에 촛불을 놓아둔다.
11. 먼저 주례 사제가 홀로 다가가, 십자가에 경배한다. 이어서 성직자와 평신도 봉사자들과 신자들이 행렬을 하듯이 나아가, **네 명씩** 현시된 십자가에 경의를 표시한다. 깊은 절을 하거나 고개를 숙여 경건하게 절하며 알맞은 경의를 표시한다.
12. 십자가 경배가 진행되는 동안 모두 주님의 십자가, 비탄의 노래, 믿음직한 십자 나무, 또는 다른 알맞은 노래를 부른다. 경배를 마친 신자들은 앉는다.
13. 경배가 끝나면 봉사자가 십자가를 제대 곁의 제자리로 모셔 간다. 제대 둘레나 위나 십자가 곁에 촛불들을 켜 놓는다.

제3부 영성체

14. 경배가 끝날 때쯤, 제대에 제대포와 성체포를 펴고 미사 경본을 놓는다. 사제는 어깨보를 두르고 성체 보관 장소(수난 감실)에서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를 모셔 가까운 길로 제대에 온다. 그때 모든 이는 침묵하며 서 있다. 두 봉사자가 촛불을 켜 들고 따라와 촛불을 제대 옆이나 위에 놓는다.

사제가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를 제대 위에 놓고 성합을 연다. (주례) 사제는 제대에 나아가 깊은 절을 한다.

15. 그다음에 사제는 손을 모으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한다.

+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사제는 팔을 벌리고 모든 이와 함께 기도한다.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하 미사 통상문 참조.

16. 성체 분배가 끝나면 사제가 성합을 감실에 모신다.

17. 그다음에 사제는 기도합니다. 한 뒤, 잠깐 침묵 가운데 기도하고 나서 영성체 후 기도를 바친다.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자비로이 저희를 지켜 주시어 이 신비에 참여한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18. 그다음에 사제는 교우들을 바라보고 서서 그들을 향하여 팔을 펴 들고 아래의 기도를 바친다.

✚ 주님, 주님의 백성이 부활을 희망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였으니
이 백성에게 강복하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며
믿음을 굳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19. 그다음에 모든 이는 십자가 앞에 깊은 절을 하고 조용히 돌아간다.

20. 예식이 끝난 다음 제대는 다시 벗긴다. 제대 위에 십자가를 모셔 두고 촛불을 두 개나 네 개 켜 놓는다.

성토요일

1. 성토요일에 교회는 주님의 무덤 옆에 머물러 주님의 수난과 죽음, 저승에 가심을 묵상한다. 그리고 기도와 단식을 하며 주님의 부활을 기다린다.

2. 교회는 미사를 드리지 않고, 제대는 벗겨 둔다. 장엄한 파스카 성야 예식을 거행한 뒤에야 부활의 기쁨이 찾아오고, 이 기쁨은 50일 동안 넘쳐흐를 것이다.

3. 이날은 노자 성체만 모실 수 있다.

Ⅳ. 주님 부활 대축일 - 파스카 상아

【 준비 사항 】

구 분	담당자	내 용	비 고
제의실	수녀님	흰색 제의, 향로 및 향합, 행렬용 촛대 2개, 손전등 향로 걸이	
제 대		미사 경본, 성주간 예식서	
제 단		(주수상) 성작, 주수병 등 제구, 성수 그릇, 사제용 초 2개 부활 촛대, 성수 축복용 물 단지 2개	
기 타		(유아실 앞) 빛의 예식용 탁자, 파스카 초, 화로, 숯(숯불은 복사단에서 미리 준비), 향덩이 5개, 연필, 파스카 초 점화용 초 심지 1개, 신자용 초 심지 다수, 불집게, 무선 마이크 1개	
전례봉사	전례분과	해설자 1명, 독서자 5명	
복사단		초복사 2명, 향복사 2명	

- ※ 유의 사항
- ① 신자 중 촛불 전달하는 봉사자 미리 선정해 둘 것(1층 강당과 성가대 포함).
 - ② 예식 직전 성당의 모든 불은 소등.
 - ③ 예식 전, 십자가를 가린 천은 벗기고, 제대포는 다시 씌울 것.
 - ④ 학생들에게는 전자 초 미리 지급.

제1부

성야의 장엄한 시작

빛의 예식

불 축복과 파스카 초의 마련

1. 성당 바깥 적당한 자리에 화롯불을 준비한다. 사제는 적당한 시간에 흰색 제의를 입고, 교우들이 모인 다음에 봉사자들과 함께 그리로 간다. 행렬 십자가와 촛불은 들고 가지 않는다. 행렬은 보통 때와 같이 향복사, 초복사, 사제 순으로 한다.

빛의 예식 전 해설

오늘 밤 우리는,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시는 주님을 깨어 기다리며, 그분의 부활을 기뻐하고 경축하는 희망과 승리의 부활 대축일 성야 미사를 봉헌합니다. 이스라엘은 파스카 밤에 이집트에서 해방을 맞았고, 홍해를 건너 완전한 자유를 누린 때도 밤이었습시다. 참다운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주는 주님의 부활도 이 밤에 실현되리라 우리는 믿습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등불을 밝혀 들고 깨어 기다리는 종과 같이, 빛이며 생명으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고 환영합니다. 주님 부활의 의미는 이 밤에 거행하는 빛의 예식과 말씀 전례 및 세례 갱신 예식, 성찬 전례 통하여 잘 표현됩니다. 먼저 시작하는 빛의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어둠과 죽음의 세상을 빛과 생명의 세상으로 새로이 만드셨음을 경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2. 사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며 신자들과 함께 십자 성호를 긋는다. 이어서, 사제는 보통 때처럼, 모여 있는 교우들에게 인사하고 아래의 말이나 비슷한 말로 성야 예식을 간단히 풀이한다.

✚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신 거룩한 이 밤에
교회는 온 세상의 모든 자녀에게
이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도록 권고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신비를 경축하며
주님의 파스카를 기념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하느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3. 그다음에 사제는 팔을 벌리고 아래와 같이 기도하며 불을 축복한다.

✚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를 통하여 신자들에게 사랑의 불을 놓아 주셨으니
새로 마련한 이 불을 ✚ 거룩하게 하시어
저희가 이 파스카 축제를 지내며 천상의 삶을 갈망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영원한 빛의 축제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불 축복 후 해설

이제 주례 사제는 파스카 초에 십자가를 긋고 십자가 위에 그리스어 알파벳의 첫자인 알파를, 십자가 밑에는 끝자인 오메가를 쓰고 십자가 양옆에 올해의 년 수를 씁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세상의 생명과 빛이 되시고, 만물의 시작이시며 현재이고 끝이시며 영원 무궁히 영광과 통치권을 차지하는 주님이 되셨음을 뜻합니다. 또 이러한 영광과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입으신 다섯 상처를 통하여 이루어졌기에 주례 사제는 파스카 초에 다섯 개의

향덩이를 꽃습니다.

4. 새 불을 축복한 다음에 초복사 한 사람이 파스카 초를 들고 잡아준다. 사제는 파스카 초에 필기구로 십자를 긋고, 십자 위에 그리스 글자 A, 십자 밑에 요를 쓰고, 십자의 팔 위와 아래 칸에 그해 연도의 네 숫자를 한 자씩 쓰며, 그 사이사이에 아래와 같이 말한다.

1. 주 그리스도께서는 어제 오늘도(십자의 세로줄을 새기며)
2. 시작이며 마침이시고(십자의 가로줄을 새기며)
3. 알파이며(십자의 세로줄 맨 위에 A를 새기며)
4. 오메가이시고(십자의 세로줄 맨 아래에 요를 새기며)
5. 시간도(십자가 왼쪽 위 칸에 그해 연도의 첫 숫자를 새기며)
6. 시대도 주님의 것이오니(십자의 오른쪽 위 칸에 둘째 숫자를 새기며)
7. 영광과 권능이(십자의 왼쪽 아래 칸에 셋째 숫자를 새기며)
8. 영원토록 주님께 있나이다. 아멘.(십자의 오른쪽 아래 칸에 마지막 숫자를 새기며)

5. 사제는 십자와 다른 글자들을 새기고 나서 초에 파 놓은 구멍에 향덩이를 십자 모양으로 하나씩 순서대로 꽃으며 말한다.

1. 주 그리스도님,(위)
2. 거룩하시요(중간)
3. 영광스러우신 상처로(아래)
4. 저희를 지켜 주시고(왼쪽)
5. 보살피 주소서. 아멘.(오른쪽)

6. 사제는 새 불에서 파스카 초에 불을 댕기면서 아래와 같이 기도한다.

✦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님

이 빛으로 저희 마음과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소서.

파스카 초에 불을 댕긴 다음 봉사자 한 사람 또는 사제가 화로에서 불잉걸을 집어 향로

에 넣는다. 사제는 보통 때처럼 향을 넣는다. 위의 기도가 끝나고 사제가 향을 넣음으로써 행렬 준비가 끝나면, 전례 봉사자가 아래의 해설을 시작한다.

행렬 전 해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파스카 초를 든 사제와 함께 성당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이 불기둥을 따라 사막에서 여행하였듯이, 우리는 세상의 빛이시며,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빛과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사제가 “그리스도 우리의 빛” 이라고 노래하면, 신자 여러분들께서는 성가대를 따라 “하느님 감사합니다”로 답합니다.

행렬

7. 공동집전 사제가 파스카 초를 받아 들고 행렬을 시작한다. 향로 봉사자는 향이 피어 오르는 향로를 들고, 파스카 초를 들고 가는 사제 앞에 서서 간다. 사제와 봉사자들과 교우들이 그 뒤를 따른다. 모두 불을 붙이지 않은 초를 손에 들고 간다.

성당 문에서 사제는 멈춰 서서 파스카 초를 높이 들고 노래한다.

+ 그리스도 우리의 빛.

모두 응답한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제는 파스카 초에서 자기 초에 불을 댕긴다.

그다음 사제는 성당 가운데에 이르러 멈춰 서서 파스카 초를 높이 들고 같은 방식으로 다시 노래한다. 모든 교우는 파스카 초에서 자기 초에 불을 댕긴다. 사제는 교우들이 불을 댕길 때까지 잠시 대기했다가, 행렬을 계속한다. 그리고 제대 앞에 이르러 교우들을 바라보고 서서 파스카 초를 높이 들고 세 번째로 노래한다.

세 번의 노래를 모두 마쳤으면, 사제는 독서대 옆이나 제단 안에 마련된 큰 촛대에 파스카 초를 놓는다. 그리고 제대 초는 켜지 않고, 제대 위 전등 불만 켜다.

파스카 찬송

8. 제대에 이르러 사제는 주례석으로 가고 자기 초를 봉사자에게 넘겨준다. 그리고 미사에서 복음 봉독 전에 하는 것처럼 향로에 향을 넣고 축복한다.
9. 공동집전 사제는 예식서와 초에 분향하고 독서대에서 파스카 찬송을 한다. 이때 모든 이는 손에 촛불을 켜 들고 서 있다.

제2부

말씀 전례

10. **해설자의 안내에 따라** 모든 이가 손에 들고 있는 촛불을 끄고 앉는다. 독서가 시작되기 전에 사제는 아래의 말이나 비슷한 말로 권고한다.

✦ 형제 여러분,

우리는 성야 예식을 장엄하게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파스카 성야에 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조용한 마음으로 들읍시다.

하느님께서 일찍이 당신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마침내 어떻게 당신 아드님을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는지 깊이 묵상합시다.

또한 파스카로 이룩한 이 구원을

우리 주 하느님께서 완성하여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11. 사제가 권고한 다음에 말씀을 봉독한다. 독서자가 독서대에 가서 독서를 봉독하고 나면 시편 담당자나 선창자는 시편을 노래하거나 읊고, 교우들은 화답한다. 그 뒤에 모든 이가 일어서고, 사제는 기도합시다. 하며 잠깐 침묵 가운데 기도한 다음 독서 후 기도를 바친다. 해설자는 사제가 독서 후 기도를 바치기 전후로, 교우들이 자리에서 일어서고 다시 앉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독서 후 기도

해설(독서가 끝날 때마다)

모두 일어섭시다.

12. 제1독서(창조: 창세 1,1-2,2)와 시편 104(103)편 또는 33(32)편 다음

+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놀라우신 섭리로 저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으니
한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업적과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파스카 제물로 희생되신
놀라운 구원을 깨닫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 아멘.

해설(독서 후 기도가 끝날 때마다)

모두 자리에 앉읍시다.

13. 제3독서(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탈출 14,15-15,17)와
찬가(탈출 15장) 다음

+ 기도합시다.

하느님, 그 옛날 이집트에서 이루신 기적을
오늘도 보여 주시니
전능하신 하느님의 오른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파라오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셨듯이
새로 나는 세례의 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의 자녀로 삼으시어
온 세상 사람이 선택된 민족의 충만한 은총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14. 제5독서(모든 이에게 거저 주신 구원: 이사 55,1-11)와 찬가(이사 12장) 다음

✚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신 하느님께서
오늘 거행하는 이 신비를 예언자들을 통하여 알려 주셨으니
저희가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며
구원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15. 제7독서(새 마음과 새 영: 에제 36,16-17ㄱ,18-28)와
시편 42(41)-43(43)편 다음

✚ 기도합시다.

영원한 빛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놀라운 구원의 성사인 교회를 굽어보시고
영원으로부터 마련하신 인류 구원을 이루시어
넘어진 것이 일어나고 낡은 것이 새로워지며
만물의 시작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완전해짐을
온 세상이 보고 깨닫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 아멘.

16. 구약의 마지막 독서와 화답송과 기도가 끝나면 제대 초에 불을 켜고, 사제가 대영광송을 시작하면 모든 이가 함께 노래한다. 그동안 지역 관습에 따라, 두 번째 초복사와 향합복사가 종을 친다. 교우들은 모두 일어선다.

17. 대영광송이 끝나면 사제는 보통 때처럼 본기도를 바친다.

✚ 기도합시다.

하느님,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 거룩한 밤을 비추셨으니
저희가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고
저희 모두 몸과 마음이 새로워져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18. 그다음에 독서자가 사도의 서간(로마 6,3-11)을 봉독한다.

19. 서간을 봉독하고 나면 모두 일어선다. 사제는 목소리를 차츰 높여 가며 알렐루야를 성대하게 세 번 선창하고 그때마다 모든 이가 되풀이한다. 그런 다음 시편 담당자나 선창자가 시편 118(117)편을 노래하고 교우들은 알렐루야로 화답한다.

20. 주례 사제는 보통 때처럼 향을 넣는다. 복음을 봉독할 때에는 **촛불을 들고 가지 않고, 향만 들고 가 분향한다.**

21. 복음 봉독 후에 강론을 한다. 짧게 하더라도 생략할 수는 없다.

제3부 세례 전례

물 축복

22. 강론 다음에 세례 전례를 거행한다. 세례 받을 사람도 없고 세례 샘도 축복하지 않을 때에 사제는 아래와 같이 신자들을 물 축복으로 이끈다.

해설

모두 일어서십시오. 지금부터 사제는 일 년간 우리가 사용할 성수를 축복합니다.

+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념하여 뿌릴 이 물에
하느님께서 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시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우리가 받은 성령께 충실히 머물게 하실 것입니다.

잠깐 침묵하다가 사제는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주 하느님,
이 거룩한 밤을 지새우는 주님의 백성을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인간을 오묘히 창조하시고 더욱 오묘히 구원하신
주님의 위대한 업적을 기억하는 저희를 위하여
이 물에 강복하소서.
주님께서서는 이 물을 만드시어 땅을 비옥하게 하시며
사람이 마시고 몸을 씻게 하셨나이다.
또한 이 물로 주님의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백성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막에서는 그들의 갈증을 풀어 주셨나이다.
 예언자들은 이 물로 주님께서 사람들과 맺으실
 새로운 계약을 미리 알려 주었나이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는 요르단강 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재생의 세례를 마련하시고
 부패한 인간 본성을 새롭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 물로 저희가 이미 받은 세례를 기억하고
 새로 세례를 받은 형제들과
 파스카의 기쁨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세례 서약 갱신

23. 세례 예식이 끝난 다음에, 또는 세례와 견진이 없을 때에는 물을 축복한 다음에, 앞에서 세례 받는 사람들과 함께 세례 서약 갱신을 하지 않았으면 모든 이가 촛불을 켜 손에 들고 서서 세례 때에 한 신앙의 약속을 새롭게 한다.

해설

지금부터 세례 서약 갱신이 있겠습니다. 모두 초를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파스카 초로부터 불을 땀겨 모두 촛불을 밝혀 들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던 날의 결심을 회상하면서, 세례 때 약속한 서약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성삼위의 거룩한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후, 이 세상 죄에 대하여 얼마나 죽으려 했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생명의 빛 안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이켜보며, 결심을 새롭게 하는 엄숙한 순간입니다. 사제의 질문에, 우리의 결심을 “예, 끊어버립니다”, “예, 믿습니다” 하고 힘차게 응답합니다.

사제는 아래의 말이나 비슷한 말로 신자들에게 권고한다.

- +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세례로 파스카 신비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사순 시기의 여정을 마치며
마귀와 마귀의 모든 행실을 끊어 버리고
거룩한 가톨릭 교회 안에서
하느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한 세례 서약을 새롭게 합니다.

- + 여러분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고자
죄를 끊어 버립니까?

◎ 예, 끊어 버립니다.

- +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악의 유혹을 끊어 버립니까?

◎ 예, 끊어 버립니다.

- + 죄의 근원인 마귀를 끊어 버립니까?

◎ 예, 끊어 버립니다.

그다음에 사제는 계속하여 묻는다.

- +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 예, 믿습니다.

- +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동정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까?

◎ 예, 믿습니다

+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 예, 믿습니다

사제는 아래의 기도로 끝을 맺는다.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게 하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를 지켜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아멘.

해설

사제는 세례 때의 약속을 새롭게 한 우리에게, 새로 축복한 성수를 뿌림으로써, 하느님 앞에 계약이 이루어짐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그 성실성을 강조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느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오늘의 결심이 영원한 축복의 그 날까지 계속되기를 간구합니다. 사제가 성수를 뿌릴 때 고개를 숙이고 결심의 표시로 십자 성호를 그읍시다.

24. 사제가 교우들에게 성수를 뿌린다. 성수 그릇을 담당하는 봉사자는 사제가 성수를 교우들에게 뿌리는 동안 동행한다. 그때에 모두 성전 오른쪽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았네. 를 노래한다.

해설

(사제가 제단 위로 올라가면) 모두 촛불을 꺼주십시오.

25. 세례 샘을 축복하지 않았으면 성수를 적당한 자리에 옮겨 놓는다. 성수를 뿌린 다음 사제는 주례석으로 간다. 신경은 생략하고, 보편 지향 기도를 이끈다. 교우들은 해설자의 안내대로 초를 끈다.

제4부

성찬 전례

해설

(예물봉헌이 끝나면) 지금부터 성찬 전례가 거행됩니다.

26. 사제는 제대로 가서 보통 때처럼 성찬 전례를 시작한다.
향로와 향합 봉사자는 예물 준비 중에 사제와 신자분향을 준비한다. 또 거룩하시도다.를 노래하기 전에 분향을 미리 준비한다.

27. 사제는 마침 예식에서 교우들에게 장엄 강복한다. 그리고 파견 때에 교우들을 바라보고 노래하거나 말한다. 이는 부활 팔일 축제 내내 이렇게 한다.

✚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유의 사항

1. 미사 전 파스카 찬송(Exsultet)의 신자 응송 부분을 연습한다.